

3년 만에 열린 함평나비축제... 전국 최고 봄축제 명성 회복

관람객 16만6726명·입장 수입 7억2000만원 나비날리기·VR체험장·에벌레 체험 최고 인기 식당가·커피숍·한옥마을 등 관광지 크게 붐벼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제24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흘 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8일 대장정을 마쳤다.

함평군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재개한 함평나비대축제가 관람객의 호평 속에 지난 8일 중앙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퍼다’란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총 16만 672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은 7억2000여 만원을 기록했다.

함평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7100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각종 판매장 매출과 버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7억6700여 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축제에선 호랑나비 등 23종 22만

마리의 나비, 사피니아 등 33종 42만본의 초화류, 40여 종의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유채꽃, 무꽃, 꽃양귀비 등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발한 함평천 수변길과 엑스포공원 입대에서는 꽃향기에 취한 상춘객들의 탄성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축제 주인공인 화려한 나비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나비·곤충생태관은 축제 기간 내내 봄비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EDM 키즈’, ‘에어슬라이드’ 등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다던 지난 5일



하루에만 3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매년 축제마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야외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장사진을 이뤘으며, ‘에벌레 체험’, ‘나비 트램펄린’도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올해 첫선을 보인 ‘VR체험장’은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나비와 함께 축제 최고 인기스타에 올랐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인기 DJ가 출연한 ‘EDM 나이트’와 ‘함평 나비 팝페라’, ‘남도 노동요’, 매일 밤 어른들의 추억을 소환한 ‘추억의 GOGO파티’와 ‘보부상 레크리에이션’ 등 20여 개의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지역 상가와 함평 주요 관광지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축제 기간 식당가와 커피숍은 물론 돌머리해수욕장, 주포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들도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비축제의 여운이 남아 있는 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생태관, 다육식물관, 수생식물관 등 3개 관은 오는 15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함평=김정섭 기자

곡성 햇멜론 첫 출하... 달콤한 유혹

최상급 멜론 산지로 알려진 곡성군이 2022년도 햇멜론 첫 출하를 알렸다.

9일 곡성멜론(주) 및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곡성멜론 대박 기원 초매식을 가졌다. 올해 첫 출하는 곡성을 대평리 박병호, 이윤배 농가에서 이뤄졌다. 양 농가는 올 1월 말 보온 시설과 난방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에서 엘스 계통 ‘PMR 춘추보스’ 품종을 정식해 이번에 8kg단위 약 600상자를 출하하게 됐다.

곡성멜론은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후,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으로 인해 맛이

/곡성=이상석 기자

완도, 수출상담회서 5개국 대상 310만 달러 계약 성사

2022 장보고수산물축제 연계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 개최

완도군은 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군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이 주최하고, KOTRA 광주 전남지원단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언택트 마케팅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해외 바이어의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했다.

수출상담회에는 관내 농수특산물 우수 수출 기업 11곳이 참가하였으며, 해외 바이어는 10개국에서 24개

사가 참가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완도군 수출 효과 품목인 전복을 활용한 전복 속회, 전복 감바스, 전복 차우더뿐만 아니라, 광어 죽, 해조류 건조보조식품, 해조류 면 등 다양한 완도 수산물 가공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총 40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호주와 베트남 등 5개국 바이어들과 총 8건, 3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특히 완도군 수출상담회 개최 이래 최초로 KOTRA를 통해 세계 무역관들과 협업체를 기존 한인 바이어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로컬 바이어가 대거 초청되면서 신시장 개척의 교

두보가 되었다는 평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 성과를 낸 기업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촉 행사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에는 국내 대형 유통 업체의 MD를 초청한 구매 상담회가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구매 상담회에는 완도군 유통 기업 11개소와 ㈜GS 리테일, 올댓 소프 등을 포함한 국내 대형 유통기업 9개사가 참가하였으며, 54건의 상담을 통해 총 1건의 업무 협약과 2건의 입점 협의가 이뤄졌다. /완도=이두식 기자

보성 맞춤형 노인복지 ‘사랑의 밥차 운영’

관내 경로당 내 식사 재개... 연말까지 진행

보성군은 지난 4일부터 주 2회 수, 금요일(11:00~12:00) ‘사랑의 밥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경로당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로당(30개소)에서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30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는 관내 경로당 내 식사 운영을 재개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 영양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난달 18일부터 경로당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띄어 앉기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 하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박우욱 부군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 발달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추진

3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지역 내 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 훈련,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전라남도의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1억 45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를 포함한 총 21억 6,20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사업은 전문인력양성 5개 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 1개 사업으로 ▲광양시 주력산업 센싱제어 아카데미 ▲광양만권 기초산업 분야 맞춤

형 일자리창출사업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기업맞춤형 청년취업 아카데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술사 임차지원사업 등이다.

올해 신규사업인 ‘광양시 주력산업 업 센싱제어 아카데미’는 4차산업에 주도하는 핵심 기술인 ‘센서 제어’에 대한 현장형 특화교육과정으로 총 3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기계설비, 산업운송장비, 물류설비관리 등 3개 과정을 운영해 110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지난 2월 22일부터 상반기 교육을 시작

했다.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철강, 조선, 항만산업의 핵심 직종인 용접, 배관, 공조냉동, 설비보전 등의 실습 중심 고숙련 기능교육과 산업안전 및 위험물 교육을 통해 5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포스코를 비롯한 22명의 대기업 취업 성과를 거둔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 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이후에도 1:1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 연계 전략으로 취업률 9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광양=조준의 기자

해남 2030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구축 ‘척척’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해남군은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enamlocalfood.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소식을 비롯해 출하 희망 농가 교육신청과 이용고객 참여광장, 해남미소를 통한 온라인 소프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남 2030 푸드플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개장하는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성과를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 정책을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에

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5개월만인 지난 2월 1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직매장 준공 전 운영하였던 임시 직매장까지 합치면 누적 매출이 20억에 달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400여개 농가에서 500여 품목을 출하하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30%에 불과했던 해남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보급률을 61%까지 높이는 등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의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닭요리 고수들의 경연’... 제7회 순천미식대첩 열린다

참가신청서 20일까지... 내년 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 대표음식점 지정

순천시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게 인기 있는 닭을 주제로 오는 6월 17일까지 제7회 순천미식대첩을 개최한다.

이번 미식대첩은 닭구이와 기타 닭요리 2개 부문으로 나눠 순천 최고의 닭요리 맛집을 선정하는 음식 경연대회로, 프랜차이즈점을 제외한 지역내 음식점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음식설명서와 완성사진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순천시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부문별 10개팀을 선정하

여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평가 상위 음식점에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의 순천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계절별 지역농산물이 다양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미식도시이며 그동안 순천미식대첩 및 전국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입증되었다”라며 “2023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을 찾는 방문객이 순천의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또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음식관광 순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미식대첩은 순천의 계절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순천을 역사문화도시이자 생태미식도시로 홍보하고자 2018년부터 올해 7회째 개최하는 음식 경연대회이다. 지난해까지 한정식을 포함한 9개 경연주제로 개최하여 99개 음식점을 선정하여 현관을 부착하고 순천 최고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7회 순천미식대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관광과(061-749-48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조준의 기자

광양을 발전 위한 읍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광양시 광양읍은 9일부터 31일까지 ‘행복 1번지, 살기 좋은 광양읍 만들기’의 일환으로 읍 발전을 위한 읍민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읍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읍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은 읍정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읍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로서 읍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읍장과 총무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제안은 ▲단순 건의 ▲정책 건의 ▲당면 과제로 분류하며, ‘단순 건의’는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통해 해결한다.

‘정책 건의’는 제안서 보완 후 오는 6월 광양시 주관으로 시행 예정인 ‘시민정책제안 콘서트(내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양)’에 응모할 예정이며, ‘당면 과제’는 읍사무소 담당팀에서 채택 제안 실시계획 수립 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후 향후 정책 건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무안군,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운영 안내

무안군은 상세주소 신청과 전입신고 업무의 이원화로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하며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무안=박태연 기자

나주 ‘아동학대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아동학대도시 나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품에(愛)서도담도담’을 주제로 LG화학나주공장이 후원하고 경찰서·교육지원청·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빛가람동, 남평읍, 성북동 시가지와 나주역 사거리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을 나눕니다’, ‘아동학대 NO·아동보호 YES·아동행복 OK’ 등의 아동학대예방 문구 현수막과 홍보품을 활용해 신고번호 안내, 인식개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나주=서철훈 기자